신정아 예술감독 '가짜 박사 의혹' 파문

광주비엔날레 검증시스템 구멍

아시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광주비엔날레가 '비엔날레의 꽃'이라 불리는 전시총감독 인선문제로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다.

신임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 감독에 대한 가짜박사학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광주비엔날레는 13년이라는 연륜에도 불구하고 전시총감독 선정조차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 데다 이미 신 감독의 교수직 사표를 받아두고 있는 동국대 측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진상은 곧 밝혀지겠지만 개막을 1년 앞둔 제 7회 광주 비엔날레는 또 한번 '졸속'이란 비난을 사게됐다.

PRAESES ET SOCII
UNIVERSITATIS YALENSIS
JEONG AH SHIN

가짜 학위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이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제출한 예일대 박사학위 관련 증명서.

학위 진위 논란 2005년 동국대 교수 임용때 불거져

신 감독의 예일대 박사학위 진위논란은 지난 2005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로 임용될 당시인 지난 2월 동국대 재단 이사회에서 나왔다.

당시 재단 이사인 장윤 스님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동국대는 '예일대 학위관련 서류를 예일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장윤 스님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장윤 스님은 지난 6월 "신 교수가 박사학위가 없을 뿐 아니라, 학위수여자 명단에도 신 교수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동국대측은 학위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 감독 본인도 이 문제를 적극 해명하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 버지니아大 81년 논문과 똑같아

신 감독은 지난 2005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 박사학위 논문형식에 정통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신 감독의 논문 표지에는 전문·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 학술대학원의 명칭으로 '대학원(Graduate School)'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예일대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

무엇보다 납득키 어려운 건 신 감독의 박사학위 논문과 완전히 같은 제목의 논문이 이미 1981년 미 버지니아대 박사논문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스인 유학생이 쓴 이 박사학위 논문은 1984년 책으로도 발간됐다.

논문이 일부 인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건 신감독의 논문 요약문마저도 버지니아대 논문의 요약문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같다는 점이다.

재단 검증 허술 학력·자질 등 구체적 검증 전혀 안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4월 비엔날레 감독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내 감독 후보로 9명을 내정했으나, 학력과 자질 등 구체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선정위원에 따르면 후보들의 약력과 학력 등 서류를 제출받아 후보 적합성만을 논의했을 뿐 검증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 때문에 감독 선정위원회에서도 신 감독이 선임되기까지 2달 동안 단 한차례도 신 감독의 학위진위 여부, 논문 표절 논란이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비엔날레 재단 한갑수 이사장은 "신 감독이 학위문제로 동국대에 사표를 제출한 사실과 논문표절 의혹에 들은 바 없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도교수가 날 모른다 한 건 사이 나빠진 때문"

■신정아감독 인터뷰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미술사학과)는 지난 4일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이튿날 프랑스 파리로 출국, 현지에 머물고 있다. 다음은 8일 이뤄진 본지와 신 감독과 전화 인터뷰 내용.

-왜 동국대에 사표를 제출했나.

▲학위 진위여부,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다. 재단 이사 중 한 분이 너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지긋지긋'해서 사표를 냈을 뿐이다. 잘못이 있다면 대학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왜 수리하지 않고 있겠나. 분명히 말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사표제출을 비롯,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을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생각해 거론치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이사가 해임됐고, 내가 대학에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맹쾌하게 해결됐음을 증명한다.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측에서 이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예일대 학위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있다.

▲논문은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쓰기도 한다. 표절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며, 인용사실은 각주로 달았다. 설혹 논문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일대에서 통과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논문에 관해서는 예일대에서 판단할 문제다.

-왜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신 감독은 물론 논문 조차 모른다고 하나.

▲개인적인 일이라 밝힐 수 없지만, 크리스틴 메링 교수와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교수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내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나와 불편한 관계인 지도교수의 이름을 굳이 밝혔겠나. 학위는 물론 진짜다.

-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2005년 동국대에 들어올 당시 동국대 미대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달 만 여유를 갖고 비엔날레 감독으로서 나를 평가해달라. 비엔날레의 발전을 얘기해야지 아무 문제도 없는 사안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넌센스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통합민주당 신중식·김효석·이낙연·채일병 의원, 김영진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균환 전 의원 등 8명이 지난 7일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범여권 대통합을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당 해체해야" vs "당 대 당 통합해야"

범여권 대통합 샅바싸움

범여권 대통합이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해체 문제를 둘러싸고 각 제정파의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 대통합파는 오는 11일까지 당 지도부가 대통합의 가시적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12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탈당 등을 포함한 최종 결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개 정파 대표 최종 결론 도출 실패
통합민주당 안팎 대통합 압박 격화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박상천·김한길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정대철 대통합추진모임 대표 등 범여권 3개 정파 대표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갖고 대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통합이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협상 여부와 우리당 해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당과의 '당 대 당' 협상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리당의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진정한 중도개혁대통합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해체나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허용해야 한다"며 "당 대 당 통합은 이질세력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대통합추진모임 대표도 열린우리당이 통째로 들어오는 대통합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통합민주당과 대등한 조건 하에 우리당과의 당 대 당 협상을 인정해야 하며 당의 해체 선언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범여권의 정치적 실체를 형성하는 3개 정파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임에 따라 대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4인은 이르면 각 당의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께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합민주당 대통합파의 지도부에 대한 압력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김효석, 이낙연, 신중식, 채일병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정균환 전 의원, 김영진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지난 7일 광주에서 재차 8자 회동을 갖고 대통합신당 창당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통합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에 적극 나서야 하고 열린우리당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11일까지 지도부가 대통합과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3차 회동을 갖고 탈당 등을 포함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구 민주당 출신의원들과 광주와 전남의 광역단체장이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할 경우 박상천 공동 대표 등 구 민주당 인사들은 당내에서의 호남 지분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통합민주당의 근본적인 존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구 중도통합신당 출신 의원 10여명도 8일 저녁 회동을 갖고 범여권 대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범여권 대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며 요구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변재일, 염동연, 양형일 의원 등 구 중도개혁통합신당 출신 의원들과 김효석, 신중식, 채일병 의원 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9일 오찬 회동을 갖고 대통합 문제에 대한 양대 계파 소속 의원들의 연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